

교과목해설서

교과목명 : 과학속의철학(The philosophy in Science)

중세와 근대의 구별은 인간의 지식획득 방법의 획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. 이 시기의 특성은 종교적 권위에 호소하던 것을 실험관찰에 호소함으로써 형성되는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. 우리는 이 시대의 시작을 현대 과학의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. 이후 이와 같은 맥락이 현재에 이르고, 지금은 과학시대라 하고 있다. 인간의 생활이 과학기술의 산물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학문이 과학적 사고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. 따라서 과학의 한 특수 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과학이 갖는 특성을 알 필요성이 생겨났다.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것이 광의의 과학철학이다. 본 과목은 과학철학의 한부분인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사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룬다.

교과목명 : 인문학과자연과학마주보기(Liberal Arts and Science)

인간의 사고는 1900년을 전후하여 현실과 초현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. 특히 과학에서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뚜렷이 구별하고 있다. 이와 같은 사조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예술에서도 그 표현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. 또 한가지 특징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넘어서는 부분을 표현 전 단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. 본 교과목은 1900년 전후를 통해서 나타나는 시간, 공간, 실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실재를 어떤 대상으로 분해하는가, 그리고 이 대상들을 어떤 시공간배열 속에서 재구성하는가를 보여준다.

교과목명 : 그리스로마문화(Greek and Roman Culture)

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고전 철학이 확립될 때까지의 문화형성을 고찰하고 그 문화적 의미와 특성을 연구한다. 고대 로마의 건국 신화에서 유럽이 로마화되는 과정과 기독교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서양문화의 본질과 특성을 고찰한다. 특히 그리스 문화와 로마문화의 상이점을 비교분석한다.